

Voice of Himalaya

March 2021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사야 43:19 새번역)

COVID19 와 미얀마의 쿠데타, 일본의 지진,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 온 세계에 난리가 났습니다. 재난으로 죽고, 삶을 비관해 죽는 이들도 많습니다. 여전히 이런 혼란 속에서도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일터에서, 정치문제에 묶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바른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난리와 소문이 도처에 있을 것입니다. 현실은 안정적이지 않고 미래는 불확실 해져 가지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고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N 국도 여전히 COVID19 으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확진자 수는 200 명을 넘지 않는데 누구도 그것에 전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코로나 19 이전처럼 경제활동을 하도록 정부가 허용했다고 합니다. 하반기가 되면 학교들도 상당수 대면 수업을 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코로나 19 로 삶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19 로 인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매일을 살면서, 내일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내일을 보장해 줍니다.

선 7 현장도 시시각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자, 자녀교육, 현지인들을 돕는 방법 등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지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의 모습을 누구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 활동이 많아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이 있지만, 기뻐하면서 구체적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식년이 참으로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나 훈련, 그리고 말씀으로 다음 사역을 지혜롭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주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천지에 많은 징조와 난리가 생기고, 주님은 도둑처럼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자들은 그 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하던 다니엘이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예레미아의 예언을 깨달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스 7 를 완성하시는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로 불확실한 때에, 동역자님들께도 확실한 아버지의 위로와 돌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식년 작년 소망이 대학 입학 수속을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이제야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현재 차 선생은 잠시 WI 사무실 일손이 부족하여 주 3일 출근하여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편 기회가 닿는 대로 후원자들과 비대면으로 스무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박 선생은 소망, 국현이 통학을 돕고 있습니다. 휴식과 함께 건강을 위해 주변 호수에서 운동을 합니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활동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스무지에서도 비대면으로 현지인들을 섬기는 것이 증가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IT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또한 차 선생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스무환경을 위한 성경적 대안을 찾기 위해 말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속히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 되어 자유롭게 후원자들과 만나고 스무를 방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두 손 모아 주세요...

- ❖ [감사합니다] *소망이 송실대에서 CCM을 배우게 하심 감사, *방학 중에 가족이 함께 지내게 하심 감사, *새로운 후원자들을 연결해 주심 감사, *다음 걸음을 말씀으로 인도하심 감사
- 안식년 기간 동안 휴식과 회복 그리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 자녀들의 한국생활 적응과 안식년 이후의 국현의 학업지도(하반기에 중앙기독교 중학교에서 전학예정), 소망이가 2학기부터 입주할 수 있는 학사관이 연결 되도록, 신국 학업과 입영일정을 최선으로 인도하소서.
- N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지도자들과 방역당국이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소서.
- 같은 비전을 가진 파송 스무회를 만나게 하소서.
- 현지인들을 위해 기도: 자매 (CH, SJ), WD, 승려 KP, 가정 모임을 했던 S, 티벳어 교사였던 PT와 그 가정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소망이 대학 생활

3월부터 송실대 CCM 학과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사에서 실패했을 때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시편 20의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말씀을 주셨고, 기도 중에 위로해 주셨습니다. 대입이 어려워지는 줄 알았는데, 기다리는 중에 본인이 정말 소원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노래를 배우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사소한 한국 생활도 낯설고, 학과 수업을 따라 가느라 이른 아침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연습하고 귀가하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 도전들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에서 통학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머물 학사관을 찾고 있습니다.



봄이오고 있다

COVID19 때문에 나라가 온통 피곤해졌습니다.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미 봄 꽃이 '나 여기 왔어요' 외치듯이 나무에 돌아났습니다. 전염병으로 온통 나라가 정신이 없는데 자연은 위로의 선물이 되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은 어수선했는데, 이제 막내 국현이도 매일 학교 가고, 소망이는 대학교에, 신국이는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 탈없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사치가 되었습니다. 이 호사를 주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적응해서 산다고 하지만, 코로나 19 이후에 여전히 감염에 노출되어 불안한 일상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돌보심이 더욱 간절해질 것입니다.